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 2+2척 수주

현대중공업이 시도상선으로부터 15,900TEU급 컨테이너선 2+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스크러버 탑재형이며 척 당 선가는 1.26억달러라고 보도됨. 확정분 2척의 납기는 2022년 하반기라고 보도됨. 시도상선은 MSC(Mediterranean Shipping Co)와 체결한 장기용선 계약을 토대로 선박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우조선해양, VLGC 3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91,000CBM급 VLGC(초대형LPG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7,812만달러이고 인도기한은 2023년 하반기까지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Thenamaris ups MR newbuilding tally at Hyundai Mipo Dockyard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했다고 보도됐던 MR탱커 2척에 대한 발주처는 그리스의 Thenamaris라고 보도됨. 발주처는 50,000DWT급 석유 화학제품운반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옵션분을 확정 발주 했으며 척 당 선가는 3,600만달러라고 보도됨.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할 예정이며 납기는 2022년 하반기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알바니아, LNG터미널 타당성 조사

알바니아의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Energy는 Excelerate Energy 및 ExxonMobil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알바니아 남부 Vlora 항만에 LNG 수입 터미널 건설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보도됨. LNG수입 터미널 개발 계획 및 ExxonMobil이 알바니아에 LNG를 공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중공업,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참여

두산중공업과 경상남도, 삼강엔앤티, 한국남동발전, 경남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등 11개 기관 연합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MW(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보도됨. 오는 2025년 4월까지 정부출연금 270억원을 활용해 '8MW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머니S)

Baltic Dry Index breaks 2,000 points for first time in five months

BDI(Baltic Dry Index)지수가 5개월만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보도됨. 전일 2,017포인트를 기록하며 2020년 10월 7일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도됨. Capesize 벌크선 시황이 개선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